

학술 논문

박상호 (2012). SNS의 여론형성과정과 참여행태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012.5, 55-73 (19 pages)

요약

대표적인 SNS중 트위터의 성격에 대해서 첫째,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둘째, 트위터에서 형성된 의견은 기록으로 남지만 다른 팔로우의 반응이 없으면 잠점화 되지 않고, 빠른 시간 내 잊혀 진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140자의 단문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면서 여론이 형성되므로 분단위로 여론이 변화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인터넷 매체와는 다르게 소통의 속도와 파급력이 커서 여론의 전파력은 강하지만 짧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트위터를 분석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트위터가 많은 수의 지지자를 보유하면서 정보의 확산뿐만 아니라 여론형성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한, 사회 주요 이슈 및 여론을 선도하는 유력자인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관계 및 참여행태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SNS이기 때문이다.

분석이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재보선 기간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찰 하였다. 특히 여론 형성의 유력자인 파워 트위터리안의 영향력을 분석 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트위터의 여론형성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오전시장이 대권 불출마 선언 이후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오전시장을 지지하는 트윗보다는 반대하는 트윗의 영향력이 컸다. 10.26재보선의 경우 트위터 공간에서 나 후보자보다는 박 후보자가 촘촘한 소통망을 형성하면서 자신에게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참여행태에 관한 분석결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유명스타들이 파워 트위터리안으로써 사회이슈에 대한 참여를 선도하는 역할자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파워 트위터리안은 일반 트위터리안의 공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10.26재보선의 경우 박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 나 후보를 지지하는 파워 트위터리안보다 많았을 뿐만 아니라 박 후보와 소통을 하고 있는 일반 트위터리안도 훨씬 많았다. 특히, 박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이 보유한 커뮤니티의 규모는 나 후보를 지지한 파워 트위터리안의 5배가 넘었다. 파워 트위터리안과 일반 트위터리안의 관계는 단순한 지지가 아닌 서로 간의 공감을 전제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전통적인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과정에서 국민들은 단순히 여론에 휩쓸리는 대상에 불과하였지만, SNS가 확대되면서 이슈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고 이슈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택한 이론과의 연결성

여론형성과정에서 어떤 힘이 크게 작용했는가를 보았을 때 사회이슈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재보선을 두어서 SNS중 트위터가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SNS 환경에서 정보생산자 또는 의견발신자는 이미 명성과 인기를 확보한 명사들이나 기

존 뉴스매체 뿐만 아니라 종전에는 '의견추종자'에 불과했던 일반 개인들(트위터리안)에까지도 확대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이원태 · 차미영 · 양해륜, 2011; 박상호, 2012 재인용). 이는 트위터를 기점으로 전에 없던 여론형성과정에서의 다른 형태를 보여준 것 같다. 기존의 미디어에서 주로 형성되었던 여론이 뉴미디어가 생겨난 변화아래 참여적인 커뮤니케이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본다.

SNS를 통한 시민의식의 고취는 매우 능동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다. 송현주 · 신승민 · 박승관(2006: 박상호, 2012 재인용)은 인터넷상에서는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표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인의 의견을 읽는 것만으로 의견형성 혹은 담론과정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 느낌을 준다고 주장했다(송현주 · 신승민 · 박승관, 2006: 박상호, 2012 재인용). 논문에서 파워 트위터리안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기존의 의견지도자들(opinion leaders)이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고 좀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과거도 지금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고 따라가는 자가 대부분이지만 미디어의 변화와 발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불러주었다.

지금은 SNS 시대로 진입하는 과도기일 뿐이고 아직 진행형이다. 우리가 SNS의 이용문화를 어떻게 창조하느냐에 따라서 SNS가 여론을 긍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 SNS의 가능성은 지금 우리의 선택이라는 충분 조건에 따라 모양을 갖추어 나갈 것이고, 이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박상호, 2012)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10.26재보선 등의 사례로 SNS라는 미디어의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큰 영향을 보여주었다.